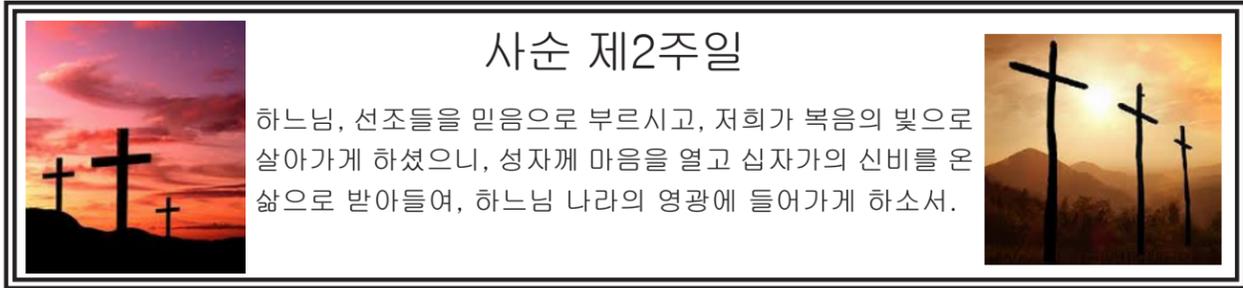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3월 기도지향

- 안동현(프란치스코), 지은경(리브가) 가정
- 정수한(베드로), 김주연(세실리아) 가정

3월 교황님 기도 지향 : 여성의 권리와 존엄이 모든 문화 속에서 존중받도록 기도합니다.

성 요셉 성월

교회는 해마다 3월을 ‘성 요셉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 요셉 성월은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양아버지인 요셉 성인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는 달입니다. 요셉 성인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약혼자 마리아를 주님의 뜻에 따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의 협력자로 삶을 바치셨습니다.

사순시기 운동

- 성경 필사 : 시편
- 구역미사 및 판공
- 사순 특강

견진 미사 일정

- 일시 : 3/28(금) 7시
 - 장소 : 홀리트리니티 성당
 - 집전 : 캔사스 대교구 Joseph F. Naumann 대주교님
- 그동안 15명의 형제자매님들이 열심히 견진교리에 임해 주셨습니다. 견진 리허설은 27일(목)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예비자 집중 교리

- 일시 : 3/23(일) ~4/13(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성당
 - 세례식 : 4/19(토) 오후 8시 예정(유아세례 포함)
- 세례 대상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례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협 회의

- 일시 : 3/16(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기타

- 지난 주일, 영화 <Son of God> 관람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40여 명이 함께 하셨습니다.
-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하절기를 맞아 저녁미사 시간을 7시 30분으로 변경합니다.
- 캔사스 대교구 사순절 운동으로 ‘라이스 불’을 나누어 드립니다.
- 지난 금요일(3/14), 윤유나 클라라 자매님의 모친 김정애 여사(94세)의 장례미사가 회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울	성 체	마 침
119	212	156/166	117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중 복사
금주	문석찬(요 셉)	문호진(안토니오)
	정병훈(보니파시오)	안지영(카타리나)
차주	이우영(가브리엘)	이원준(요 한)
	안광민(야 고 보)	문예나(요 안 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아 네 스)	차호섭(요 셉) 최선윤(마 리 아)
차주	박혜정(카타리나)	김태중(예레미야) 김시연(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손정화, 양정희, 유애경, 한춘희, 황의정
차주	박혜정, 김정돌, 김재은, 윤유나, 지은경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 드 로)
차주	김시연(엘리사벳), 백문주(엘리사벳)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3/9	80명	358불	2,590불
윤태영, 이현주, 김정원, 이혁구, Gorman, 홍순익, 이영민, 차호섭, 양경직, 이우영			

사순 제2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4년 3월 16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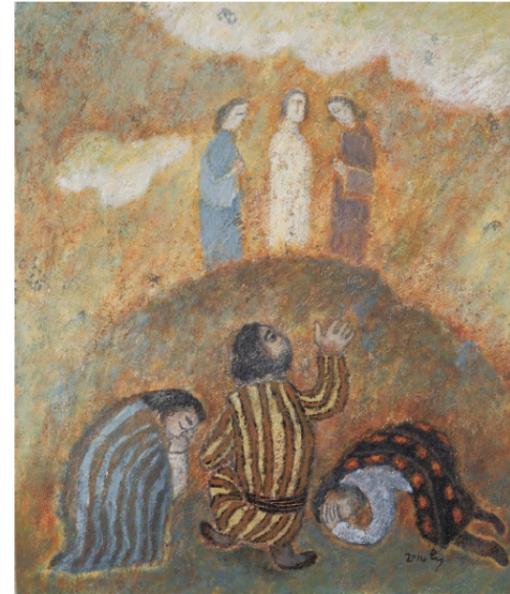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이제 우리는 사순 시기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회개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할 때입니다. 아집과 욕심과 오만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주님의 복음의 초대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미사에 마음 모아 참여합시다.

성화해설

예수의 영광스런 모습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였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태 17,2-3)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고, 엘리야는 백성들을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하느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이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말수도회

제 1 독 서 : 창세 12,1-4ㄱ < 아브라함을 하느님 백성의 아버지로 부르시다. >



◎ 저희가 당신께 바랐던 그 대로 주 님 어여빠 여기심을 저희 위에 내 리 소 서

○ 주님의 말씀이 옳으시도다. 그 하신 일마다 진실하도다.
주님께서서는 정의와 공정을 즐기시고, 그 사랑은 땅에 가득하시도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들, 당신 자비를 바라는 이들 위에 있나니,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제 그들을 살게 하시도다. ◎

○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나니, 우리 구원, 우리 방패, 주님이로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랐던 그대로, 어여빠 여기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제 2 독 서 : 2티모1,8ㄴ-10 <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환히 보여 주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 음 : 마태 17,1-9 <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

쉐 마

“버려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 뜻을 따르고, 하느님과 함께 가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릇된 길로 가려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돼야 행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자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안정된 직업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예쁘고 명석하게 자라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행복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편안한 의식주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와 명예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행복도 좋지만 또 다른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또다른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채워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비우고 버리고 떠나는 행복입니다. 인류 역사에 새로운 빛을 밝혀준 분들은 채워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비우고 떠나는 행복을 통해서 빛을 보여줬습니다. 석가모니는 화려한 궁궐을 떠났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지위와 명예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서 7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비우고 떠나야 얻는 행복을 깨우쳤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시작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편안하고 정들었던 땅을 떠났습니다. 비우고 버려서 새로운 행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낮선 곳에서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부서지고 깨져야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듯이, 아이는 따뜻하고 편안한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만 하나의 인격체가 돼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명예와 권력을 모두

버리고 떠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아름답고 순결한 ‘타볼 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갈매기 조나단은 무리와 어울려 거친 바다에서 먹이를 잡고, 하늘을 나는 것이 삶의 전부라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이, 좀 더 멀리 날고 싶어했습니다. 갈매기는 주린 배를 채우는 일, 동료들과 어울려 하늘을 나는 일도 좋지만 더 높은 세상, 더 먼 세상을 향해 동료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느낄 수 없는, 전에는 배울 수 없었던 참된 비행의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떠나지 않고 비우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인내, 겸손, 사랑, 희생, 헌신, 나눔’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그러한 것들로 채우면 우리는 좀 더 가벼워져서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천상의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분노, 욕심, 이기심, 질투, 시기,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을 버릴 줄 알면 우리 영혼은 맑고 순수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게 됩니다.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비움의 영성, 버림의 영성, 떠남의 영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워야 할 것들을 너무나 쉽게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정작 버리고 비워야 할 것들은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을 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2티모 1,9-10).

바로 사도는 왜 우리가 비우고 버려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불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대교구 조재형 신부 -

마중물

베풀 힘을 주소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느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 재물 문제에 대해서 들어 보자구나.”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이 시가로 200억 원은 될 겁니다. 유가증권과 현찰을 모두 합하면...”

하느님께서 말을 막으셨습니다. “애야, 나는 네가 모은 재산이 얼마인지에는 관심이 없다. 네가 재테크를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하면 된다.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얼마나 되느냐?”

천국에서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아니라 내가 쓴 것만이 내 돈’입니다. 내가 쓴 돈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눈 것이 참된 의미에서 내 재물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풀 힘’이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 재물을 나누어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베풀 힘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은혜의 감격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해’교육자료

제 9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88. 교회의 ‘한 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몸’은 교회 신비체의 단일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자들 사이에 사랑을 낳도록 자극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교회헌장, 7항).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갈라 3,27-28; 가톨릭교회교리서 790-791 참조).

89. “그리스도께서 이 몸의 머리이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몸’ 즉 교회의 머리이시다(콜로 1,18)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당신 통치권을 만물 위에 펼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 파스카에 결합시키시며 우리가 성장하도록 돌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몸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선물들과 서로 다른 봉사직을 주시므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서로 돕도록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92-795참조).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